

제주방언의 연령대별 억양구 경계성조 연구 *

고미숙*, 김원보, 변길자, 김종훈, 박순복, 오창명
(제주대학교)

Misook Ko, Wonbo Kim, Gilja Byun, Jonghoon Kim, SoonBok Park and Changmyung Oh. 2007. Age-related differences in the boundary tone patterns of intonational phrases in the Jeju dialect.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42, 27-43. This study analyzed the tone patterns of the native Jeju speakers in their 70s, 50s, and 20s to find the shift aspect of into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ge group. The boundary tones of intonational phrases according to sentence patterns were closely examined to find generational specific tone patterns. Having regional balance in examination areas in mind, examination areas were classified into Jeju Island's four major administration districts, Jeju city, Seogwipo city, Bukjeju county, Namjeju county. And 32 subjects from each age group(a total of 96 subjects) joined the experiment. This study analyzed seven sentence patterns and each sentence pattern included two sentences. Therefore, each sentence pattern(including two sentences) consists of 64 intonational curves (two sentences × 32 subjects) and one sentence pattern of the three age groups included a total of 1344 intonational curves (two sentences × 32 subjects × 3 groups × 7 sentence pattern). As a result of analysis, compared with native Jeju speakers in their 50s and 20s, those people in their 70s show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by revealing much more various intonation patterns. Native Jeju speakers in their 50s have kept the characteristics unique to the Jeju dialect, but their diversity in the boundary tone patterns of intonational phrases has been decreasing gradually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ose in their 70s. Native Jeju speakers in their 20s show a lot of changes in tone patterns, and have lost the complicated tone patterns found in those in their 70s and 50s. In addition, we also found that intonational patterns according to sentence patterns, which are found in native Jeju speakers in their 20s, are changing into the patterns nearly similar to what is found in the Seoul standard.

key words: Jeju Dialect, age group, boundary tone, Intonational Phrase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72-AS2029)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제주 방언 가운데 특히 억양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 방언 사용자를 연령대별로 나누어 그들이 사용하는 억양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를 70대, 50대, 20대의 각 세대별로 나누고 문장 유형별로 주로 사용되는 억양구의 경계 성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문장 유형은 크게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분류하였으며, 의문문은 다시 가부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선택 의문문, 수사 의문문 등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연령대별로 32명의 피험자를 선정하였으며 7형태의 문장 유형별로 2문장씩 64개의 억양곡선을 얻어, 총 1344개의 억양 곡선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숙향(1999)은 제주 방언의 기본적인 억양 패턴 역시 서울 방언이나 전남 방언과 같이 하나의 발화 문장(U)의 운율 구조는 계층적 구조를 가지며 구 층위 (phrase level)에서는 두 개의 층위를 보이며 상위층의 억양구와 하위층의 악센트구 (accentual phrase)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른 지역 방언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제주 방언의 억양 연구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제주 방언의 억양구 경계 성조 연구”(고미숙, 2005)에서는 제주 방언의 전형을 보여 줄 것이라 예상되는 70,80 대의 억양패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본고는 그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제주 방언 사용자를 노년층과 중년층 그리고 청년층으로 나누어 다수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억양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제주 방언 운율 변화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2. 실험 방법

2.1 피험자

제주에서 출생하여 자란 70대, 50대, 20대의 각 지역 토박이들로 선정하였다. 70대의 자료 가운데는 80대도 6명 포함되어 있는데 80대의 화자는 찾기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령이 많아 녹음이 수월하지 못해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본문에서는 70대로 포함시켜 언급하였다.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으로 구분하여, 각 시군별로 4곳을 선정, 각 지역별로 남, 여 1명씩 연령대별

32명, 총 96명을 대상으로 녹음하였다. 20대 피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성장한 곳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나, 현 생활 지역이 대부분 제주시여서 70대와 50대와 동일한 마을별로 피험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마을 단위는 무시하고 시, 군 지역 별로 남, 여 각 4명씩 선정하였다.

동리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계
	도	괘	녕	영	뿔	뽕	뽕	혜	혜	땀	뺨	관	애	산	환	생	
70대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2명
50대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2명
20대	8명(남4,여4)				8명(남4,여4)				8명(남4, 여4)				8명(남4, 여4)				32명
합계	*70대와 50대의 경우는 각 마을별로 남·여 각 1명씩임																96명

2.2 녹음 및 분석

소음이 적은 장소를 선택하여 보통 발화 속도로 자연스럽게 발화하도록 유도한 후 피험자의 음성을 녹음하였다. 50대와 70대 토박이의 녹음은 현지마을에서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통하여 피험자를 구한 다음 그 마을에서 녹음이 이루어졌으므로, 녹음장소는 개인 주택이나 마을 회관 또는 노인 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녹음환경을 조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녹음방식은 피험자에게 카드에 쓰인 문장을 보여주고, 문장을 발화하게 한 다음 가장 자연스럽게 억양을 발화할 때까지 연습한 후 녹음하였다. 반면 20대 피험자의 경우 모두 대학 재학생들로 대학 내의 연구실에서 녹음이 이루어졌으며, 몇 번의 연습을 거쳐 역시 자연스럽게 발화된 억양을 녹음하였다.

마이크는 Sony사의 ECM-MSD1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였으며, 프리앰프(Pre-Amplifier)로는 Creative Technology사의 모델명 SB0300을 이용하였다. Adobe Audition 1.5를 이용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22,000Hz의 표본율(sampling rate)로 직접 저장한 후 편집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음향분석프로그램 WaveSurfer 1.85를 사용하여 피치와 파형, 스펙트로그램 창을 동시에 열어놓고 분석하였다. 억양 패턴 분석은 이호영(1996, 1999)에서 제시하는 성조 기호를 사용하였다.

2.3 분석 예문

녹음 문장은 문장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 2문장씩을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각 연령대 별 32명의 피험자 총 96명이 발화한 한 문장유형당 발화 개수는 64개로 이 실험을

위하여 모두 1344개의 역양 곡선을 분석하였다. (32 × 3세대 × 7문장유형 × 2문장)

1) 평서문

- ① 우리 딸은 시에 살았수다. (우리 딸은 시에 살아요)
- ② 여기서 쪽 가면 있수다. (여기서 쪽 가면 있어요)

2) 의문문

a) 가부 의문문

- ③ 밧디 감수과? (밭에 가세요?)
- ④ 밥 먹었수과? (밥 먹었어요?)

b) 의문사 의문문

- ⑤ 언제 밧디 갈거과? (언제 밧에 갈 거예요?)
- ⑥ 이거 누게 옷이라? (이거 누구 옷 이에요?)

c) 선택 의문문

- ⑦ 밥 먹쿠과 국수 먹쿠과? (밥 먹을래요 국수 먹을래요?)
- ⑧ 커피 허쿠과 줘스 허쿠과? (커피 할래요 줘스 할래요?)

d) 수사 의문문

- ⑨ 일허레 밧디 가야 헐 거 아니라? (일하러 밧에 가야 할 거 아니예요?)
- ⑩ 딸네 집에 가야 헐 거 아니라? (딸네 집에 가야 할 거 아니예요?)

3) 명령문

- ⑪ 이거 먹으라. (이거 먹어라)
- ⑫ 집에 감썸. (집에 가세요)

4) 청유문

- ⑬ 우리 혼저 일허게. (우리 빨리 일하자)
- ⑭ 이거 줘 먹어봐. (이것 줘 먹어봐)

3. 실험 결과

제주 방언의 하위 방언에 관한 언어지도를 말할 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남 지방'과 '산북 지방' 2개의 권역으로 나누기도 하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시권과 서귀포권, 그리고 성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과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4개의 지역별 언어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 방언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음성 녹음을 진행하였으나 “제주 방언의 억양구 경계 성조 연구”(고미숙, 2005)에서의 분석 결과 제주 방언의 지역별 성별 변인은 억양 패턴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은 따로 기술하지 않았다.

아래에 제시한 도표는 각 연령대별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장 유형별 억양구 경계 성조를 비교 표시한 것이다. 또한 그림은 지면 관계상 제주 방언 억양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20대 토박이의 대표적인 억양구 경계 성조만을 선택하여 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피치 유형은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억양구 경계 성조가 없이는 마지막 분절음을 대상으로 표기하였다. 아래에서 언급하는 표준어의 억양 유형은 이호영(1996, 1999)을 참고로 비교, 서술하였다.

3.1 평서문

평서문에서는 70대와 50대의 경우 내림조인 HL% 경계 성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70대에서는 총 64번의 발화 가운데 HL%이 48번 출현하여 75.0%를, 50대에서는 43번 출현하여 67.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낮은 수평조인 L%이 70대는 12번 나타나 18.8%를 차지하고 50대 역시 13번으로 20.3%를 차지해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낮은 수평조인 L%은 내림조인 HL%에 비해 다소 무뚝뚝한 어감을 지니는 듯하다. 이 밖에 70대에서 HL% 유형의 변형인 HLH%이 3번, HLHL%이 1번 나타나고 있으며, 50대에서는 HLH%가 6번, HLHL%과 LH%도 각각 한 번씩 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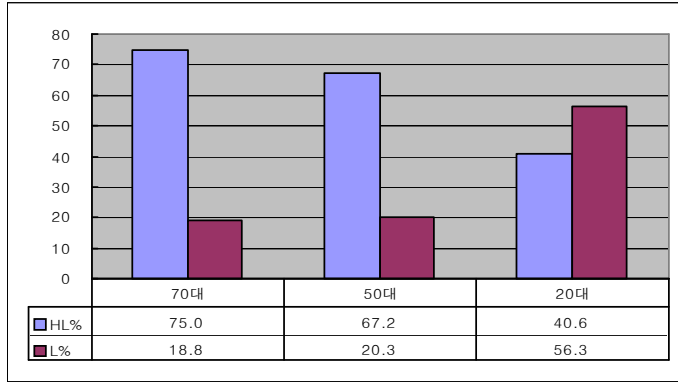


도표1. 평서문의 연령대별 주 억양구 경계성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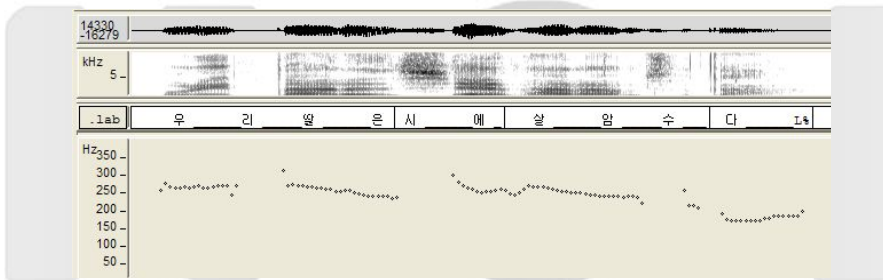


그림1. 남제주군 신평리 20대 여성의 평서문 억양구 경계성조

20대 화자의 경우 예상했던 바대로 70대와 50대의 양상과는 상당히 다른 억양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대에서는 70대와 50대 제주 방언 사용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억양 패턴인 HL%의 사용 빈도가 26번으로 많이 낮아져 40.6%를 차지하고, 오히려 낮은 수평조인 L%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L%은 총 64 번의 발화 가운데 36 번 출현하여 56.3%를 차지해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서문의 대표 경계성조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어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표준어 평서문에서 사무적인 태도에는 낮은 수평조인 L%이 주로 나타나고, 친절한 태도에는 낮 내림조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20대의 경우 HLH% 성조도 2번 나타나고 있다.

3.2 의문문

3.2.1 가부 의문문

제주 방언의 가부 의문문을 화용론적 측면에서 볼 때 단순 질문과 확인 질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단순 질문형 가부 의문문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대부분 으뜸조인 LH% 경계 성조를 사용하거나 이 경계 성조의 변형인 LHL% 억양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2005)). 반면 화자가 질문 내용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묻는 확인 질문의 경우는, 단순 질문의 억양 형태와는 정반대인 내림조 경계 성조 HL% 이 주로 나타난다. 피험자의 연령대별로 주어진 실험 문장의 가부 의문문을 단순 질문으로 인식하느냐, 확인 질문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비율은 약간씩 다르지만 억양구의 경계 성조 패턴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70대 화자의 경우 주어진 가부 의문문을 단순 질문으로 인식하여 으뜸조인 LH%와 LHL%로 발화한 경우가 17번과 15번으로 나타나고 있어 총 50%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확인 질문으로 인식하여 내림조인 HL%로 발화한 경우는 22번으로 34.4%를 차지하고 있다. 50대의 경우 주어진 가부 의문문을 단순 질문으로 인식한 비율이 좀 더 높아지는데, LH%가 총 45번 출현하여 70.3%로 나타나고 있으며, 확인 질문으로 인식한 HL%로 발화한 경우는 18.8%를 차지하고 있다. 가부 의문문의 대표적인 경계 성조인 LH%와 HL% 이외에도 70대의 경우 HLH%(8번), LHLH%(2번) 등의 경계성조가 출현하고, 50대에서는 HLH%가 1번 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억양 패턴은 HL%이나 LH% 등의 단순한 억양정보보다는 친근감을 가지고 묻는 느낌을 준다. 그 외 50대에서 낮은 수평조인 L%도 2번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억양정보보다 무뚝뚝한 어감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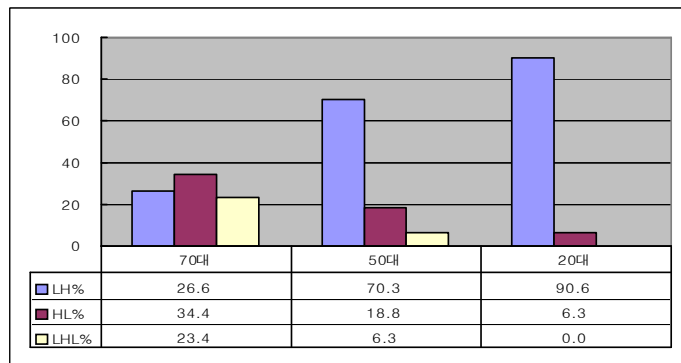


도표2. 가부 의문문의 연령대별 주 억양구 경계성조

20대 피험자의 경우 제시한 가부의문문을 단순질문 형태로 인식하여 대부분이 오름조인 LH% 경계 성조로 발화하였는데, 모두 58번 나타나 90.6%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확인 질문으로 인식하여 내림조인 HL%로 발음한 경우는 4번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L%이 2번 출현하는데 역시 무뚝뚝한 어감이 느껴진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제시한 가부의문문을 단순 질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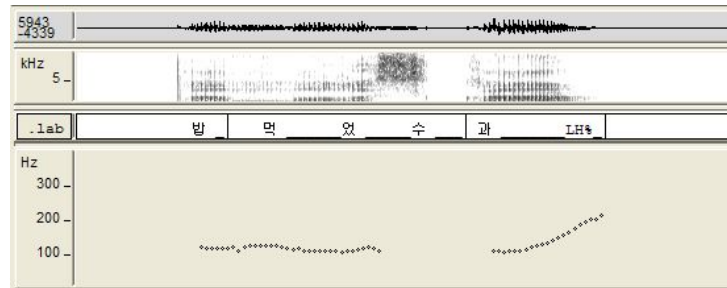


그림2. 서귀포시 하원동 20대 남성의 가부의문문 억양구 경계성조

3.2.2 의문사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부 의문문과는 전혀 다른 억양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준어에서는 가부 의문문 중에 단순 질문 형태인 경우 주로 높은 수평조인 H%의 경계 성조가 없히고, 확인 질문의 경우 오름조인 LH% 경계 성조가 출현한다. 이에 반해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가운데 수평조인 M%이나 낮내림조인 HL%이 주로 나타난다.

제주 방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 의문사 의문문과 가부 의문문의 억양구 경계 성조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의문사 의문문의 경우 주로 낮내림조인 HL%의 형태가 가장 대표적인 억양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부 의문문의 확인 질문 형태의 HL%과 비교해 봤을 때, 수사 의문문의 HL%의 경우 억양구 마지막 음절의 음높이가 훨씬 더 많이 상승하였다가 하강하는 낮내림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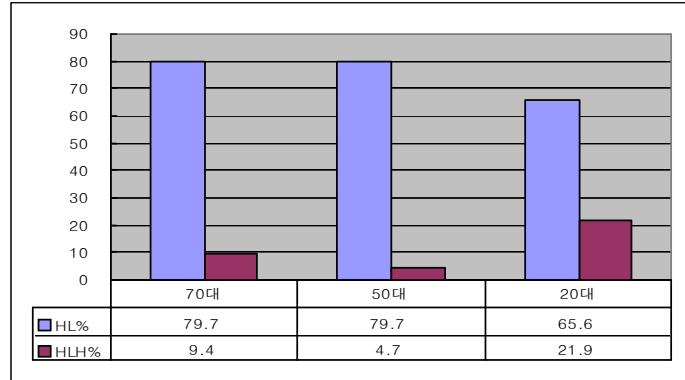


도표3. 의문사 의문문의 연령대별 주 억양구 경계성조

제주 방언 의문사 의문문에서 70대의 경우 HL% 경계 성조가 51번 나타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역시 51번으로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20대에서는 내림조인 HL%이 70대와 50대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42번 출현하여 65.6%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0대 제주 토박이의 경우 HL%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HLH%가 6번 출현하고, HLHL%이 3번, H%와 L%도 각각 2번씩 나타나고 있다. 50대에서 HLH%가 3번 출현하여 4.7%를 차지하고, LHL%과 L%이 각각 4번, H%와 HLHL%도 각각 1번씩 나타나고 있다 20대 토박이의 경우 70대나 50대보다 HL% 경계 성조 사용 빈도가 줄었지만, 그의 변형 형태인 HLH%이 14번 출현하고 있으며, L%도 8번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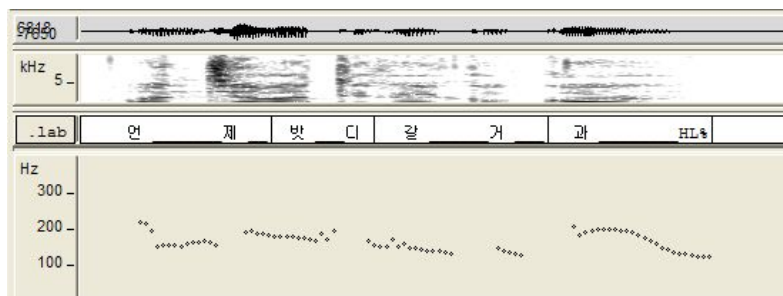


그림3. 제주시 도남동 20대 남성의 의문사의문문 억양구 경계성조

3.2.3 선택 의문문

이번 실험에서 제시한 선택 의문문은 앞, 뒤 두 개의 억양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어의 경우 선택 의문문의 앞 억양구 말에는 가운데 수평조 M%이나 낮오름조인 LH%가 없히고, 뒤 억양구에는 주로 낮내림조 HL%가 쓰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우선 제주 방언 선택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앞 억양구의 경계 성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70대 제주 토박이들은 앞 억양구의 억양 패턴으로 H%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총 64번 가운데 38번 나타나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LH%가 12번으로 1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H%나 L%로 딱히 구분하기 힘든 가운데 수평조 M%도 8번 출현하고, 낮은 수평조인 L%(6번)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50대의 토박이들이 H%를 앞 억양구의 경계 성조로 사용하는 비율은 70대와 비슷한 40번으로 62.5%를 차지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억양은 70대와 달리 가운데 수평조인 M%으로 13번 나타나 70대의 LH% 발화 빈도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오름조인 LH%는 4번 밖에 출현하지 않고 있다. 20대 토박이의 발화에서는 앞 억양구에 쓰인 대표적인 경계 성조가 가운데 수평조인 M%으로 총 49번 출현하여, 70대 50대와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표준어의 선택의문문 앞 억양구에 쓰이는 가운데 수평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 다음으로 H%가 9번 출현하고, 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났던 오름조인 LH%는 2번 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선택 의문문 앞 억양구의 대표적인 경계 성조가 보여주는 20대 화자의 억양 변화는 70대와 50대 토박이와는 달리 젊은 층에서 제주 방언의 전형적인 억양 패턴이 사라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50대에서는 L%이 5번, HL%이 2번 나타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L%이 4번 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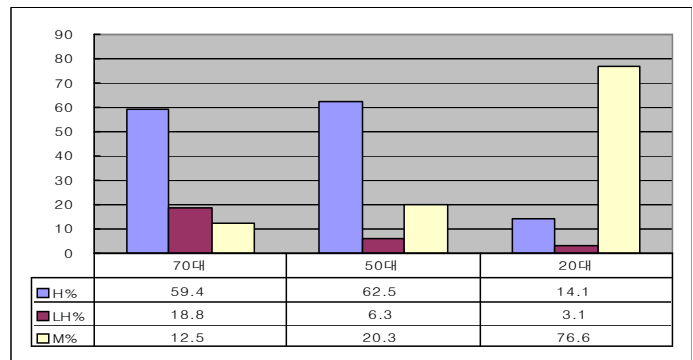


도표4. 선택 의문문 앞 억양구 연령대별 주 억양구 경계성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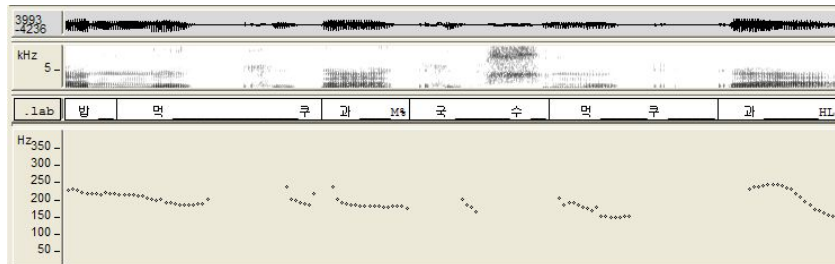


그림4. 제주시 도남동 20 대 여성의 선택의문문 억양구 경계성조

선택의문문의 뒤 억양구의 경계 성조로는 70대 연령층에서는 낮은 수평조인 L%이 39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 60.9%를 차지하고 있고, HL%이 23번으로 35.9%를 차지하여 대표적인 경계 성조임을 알 수 있다. 50대에서는 내림조인 HL%이 81.3%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L%이 10번 나타나 1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70대와 50대에서 HLH%가 2번씩 출현하고 있다. 20대 토박이는 HL%을 41번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내림조인 L%을 19번 사용하여 29.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HLH%가 3번, LH%가 1번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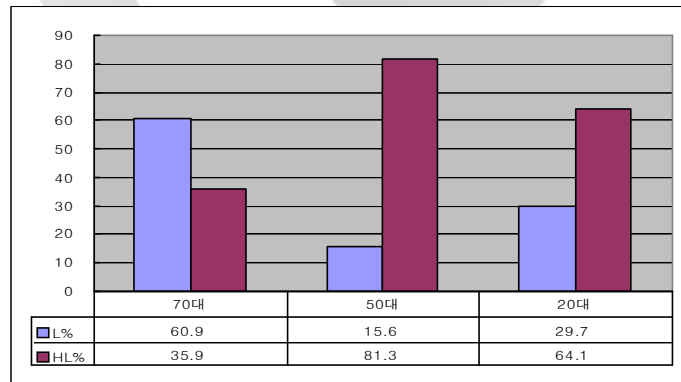


도표5. 선택 의문문 뒤 억양구 연령대별 주 억양구 경계성조

선택 의문문에서 구말 장음화 현상에 대한 분석은 함께 음성 녹음 작업에 참가했던 제주방언 연구자들의 청각적인 분석에 의존한 것으로, 대개의 경우 앞, 뒤 두 억양구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70대 노년층에서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앞 억양구

마지막 음절의 길이가 뒤 억양구보다 더 긴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50대에서도 선택 의문문 앞 억양구의 구말 장음화 현상이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대 젊은 층의 경우 이 현상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이 역시 표준어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3.2.4 수사 의문문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평서문보다 더 강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수사 의문문의 억양구 경계 성조에 대해 알아보자. 70대 제주도 토박이의 경우 LH%가 26번으로 40.6%를 차지하고, 그와 비슷한 빈도로 낮은 수평조인 L%도 25번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 LH%는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고, L%은 좀 더 강경한 어조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느낌이 강하다. 또 LHL%(2번), HL%(2번), HLH%(5번), HLHL%(2번), LHLH%(2번) 등의 다양한 경계성조가 나타나고 있다. 50대 화자의 경우 LH% 경계 성조가 54.7%로 35번 나타나고 있으며, 70대에서 많이 나타난 L%은 2번 밖에 출현하지 않고 있다. 그 외 HL%이 8번, HL%의 변형인 HLH%이 11번, LHL%이 6번 HLHL%이 2번씩 나타나고 있다. 20대의 젊은층의 경우는 LH%가 절반인 50%(32번)를 차지하고, HL%과 L%이 각각 10번씩 출현하고 있다. 또 HLH%이 5번, LHL%이 3번, H%가 2번 나타나고 있다. 표준어에서는 수사 의문문에 낮은 수평조(L%)나 낮내림조(HL%) 및 오르내림조(LHL%)를 주로 사용하는데, 수사 의문문의 억양 패턴으로 낮오름조인 LH%를 많이 사용하는 제주 방언과는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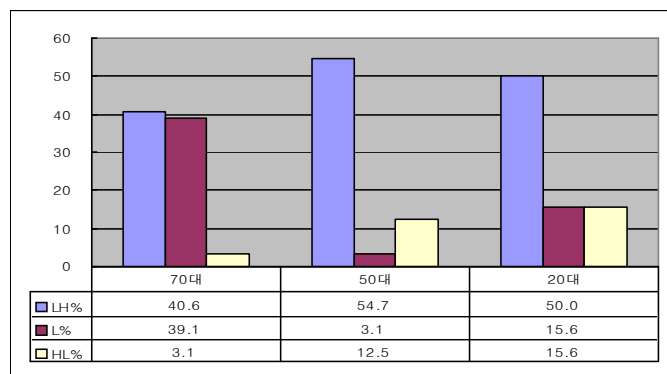


도표6. 수사 의문문의 연령대별 주 억양구 경계성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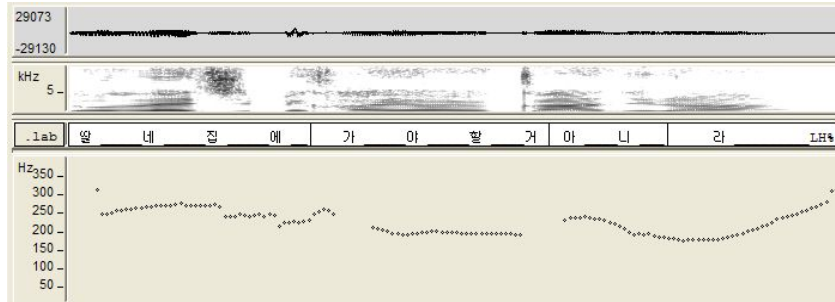


그림5. 제주시 건입동 20 대 여성의 수사의문문 억양구 경계성조

3.3 명령문

제주 방언 명령문에서는 70대의 경우 내림조인 HL%이 총 53번 출현하여 82.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낮은 수평조인 L%은 7번 나타나 10.9%를 차지하고 있다. HL%은 대체로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어감을 지니는 반면, L%은 부탁이나 권유의 어감이 강하다. 또한 HL%이나 L%보다 부드러운 명령의 느낌을 갖는 HLHL%이 2번, HLH%와 H%도 각각 1번씩 출현하고 있다. 표준어에서는 권위를 가지고 청자에게 명령하는 경우 낮은 수평조 L%이나 낮내림조 HL% 혹은 오르내림조 LHL%를 주로 사용한다.

50대 제주 토박이들은 70대보다 비율이 약간 낮기는 하지만, HL%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75%를 차지하고, L%이 5번, HLH% 4번, 그리고 LHL%과, HLHL%, H% 등이 각각 2번씩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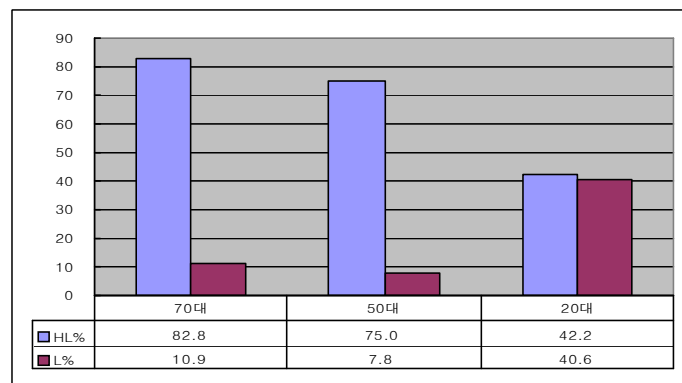


도표7. 명령문의 연령대별 주 억양구 경계성조

20대의 명령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억양 패턴은 앞선 70대, 50대와는 상당히 다른데, 낮은 수평조인 L%이 42.2%(27번)로 가장 많이 쓰이고, HL%은 그 다음으로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HLH%가 8번, LH%와 H%가 각각 1번씩 출현하고 있다. 노년층과 장년층에서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 명령문 억양 패턴인 L%이 20대에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이유는, 표준어에서 권위를 갖고 청자에게 명령하는 경우 많이 사용하는 낮은 수평조 L%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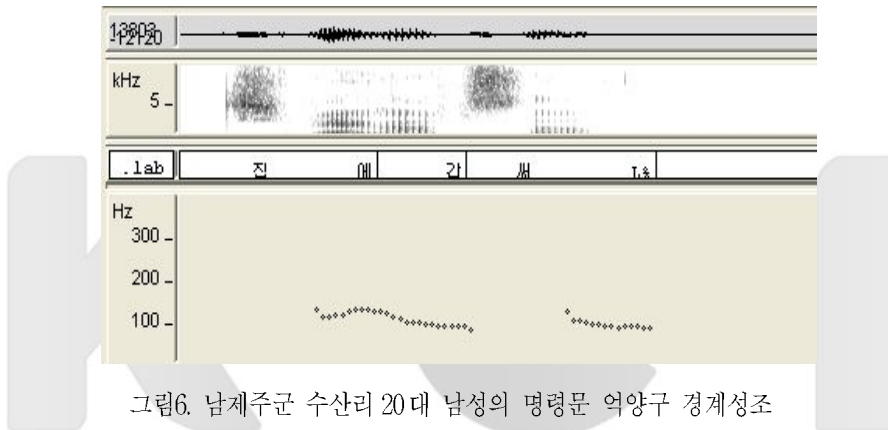


그림6. 남제주군 수산리 20대 남성의 명령문 억양구 경계성조

3.4 청유문

청유문은 70대 연령층에서 명령문과 마찬가지로 HL% 성조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빈도는 명령문에 훨씬 못 미쳐 27번 나타나 42.2%를 차지한다. 낮은 수평조인 L%은 21번 출현하여 32.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HLHL%이 5번, LHL%이 6번 LH%와 LHLHL%가 각각 2번, HLH%가 1번 등으로 다양한 경계 성조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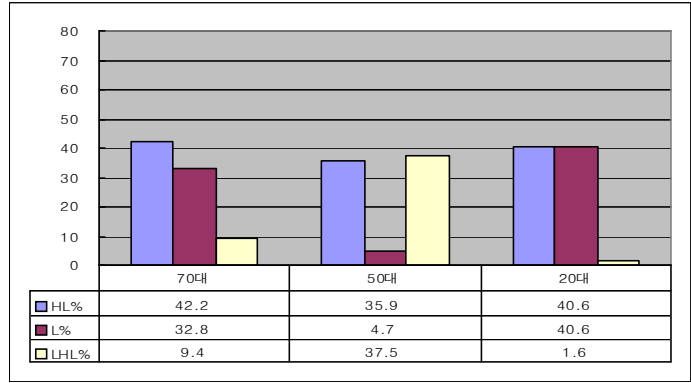


도표8. 청유문의 연령대별 주 억양구 경계성조

50대는 HL%이 23번 나타나 35.9%를 차지하여, 70대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인다. 70대에서 HL%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억양이 L%인데 반해 50대에서는 낮은 수평조인 L%이 3번 밖에 출현하고 있지 않으며, LHL%이 24번 출현하여 HL%과 거의 같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HLHL%이 7번, HLHP% 6번, LH%가 1차례 나타난다.

그리고, 20대는 70대, 50대와는 또 다른 억양 패턴을 보이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조가 HL%과 L%로 모두 40.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HLHP%가 6번 LH%와 HP%가 2번, 가운데 수평조인 M%과 LHL%이 각각 한 차례씩 출현하고 있다. 50대나 70대 청유문 억양과 비교해 볼 때 20대 젊은 층에서는 복잡한 형태의 성조 유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단순한 형태의 억양구 경계 성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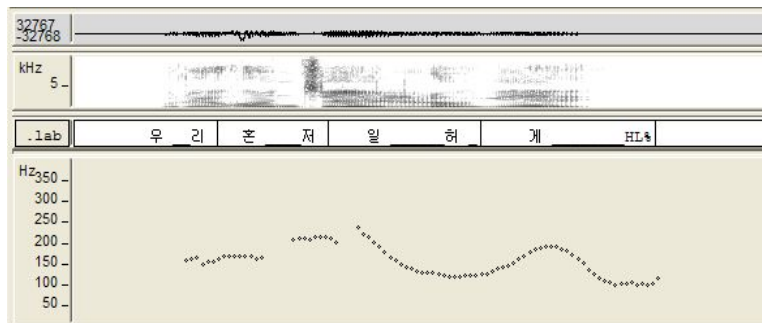


그림7. 북제주군 남읍리 20대 남성의 청유문 억양구 경계성조

4. 맺음말

우리는 앞에서 제주 방언의 연령대별 억양 형태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 방언의 전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70대 노년층과 제주 방언을 많이 보존하고는 있지만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50대 중년층 그리고 표준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20대 젊은층으로 피험자를 구분하여 제주 방언의 억양 패턴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70대 방언 토박이들이 50대 혹은 20대 토박이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다양한 억양 패턴을 구사하고 있어 전형적인 제주 방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50대의 경우 제주 방언의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70대 노년층에 비해 볼 때 억양구의 경계 성조 유형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대 젊은층의 경우는 변화가 더욱 두드러져 70대와 50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잡한 형태의 성조 유형이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문장 유형별 억양 패턴이 표준어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빠르게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억양구 경계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인 억양구 말 음절의 두드러진 장음화 현상은 제주도 방언의 눈에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본 실험에서는 청각적인 분석에 의존하기는 하였지만 이 장음화 현상이 70대 토박이의 말에는 그대로 살아 있으나, 50대의 경우 그 길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표준어와 거의 비슷한 길이로 짧게 발음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 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 특징인 복합성조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단순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제주도 방언 고유의 음성 특징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 소멸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방송 매체의 영향과 방언 사용자의 교육 수준 향상에 따른 표준어의 확산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주제어: 경계 성조, 억양구, 제주방언, 연령대>

참고문헌

- 고미숙. 2005. 제주 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 연구. 「언어과학」 34, 1-16
 이병운. 1997. 경남 방언의 억양 연구. 「우리말연구」 7, 79-103.
 이숙향. 1999. 제주방언 억양패턴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한국음향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8(2), 369-372.

- 이숙향. 2002. 한국어 운율구조 기술 체계에 대한 연구: K-ToBI 기술체계를 중심으로. 「언어학」 10(2), 125-142.
- 이숙향, 신지영, 김봉완, 이용주. 2003. 음성 코퍼스 구축을 위한 SiTEC 분절음·운율 레이블링 기준의 검토 및 제안. 「말소리」 46, 127-138.
- 이호영. 1996.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 이호영. 1997. 국어 머리 억양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33-34, 99-110.
- 이호영. 1999. 국어 핵 억양의 음향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38, 25-39.

고미숙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064)754-3298, gaomsh@hanmail.net

김원보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064)754-2436, kimwonbo@cheju.ac.kr

변길자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064)754-3298, byungilja@hanmail.net

김중훈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064)754-3227, jonghoon@cheju.ac.kr

박순복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064)754-3298, sbpark0911@hanmail.net

오창명

690-756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064)754-3298, ocmy@joins.com

접수(Received): 2007년 8월 16일

수정필(Revised version): 2007년 9월 18일